

# 이진형, '피의게임2' 우승...상금 최대 상금 3억원 중 5천만원 그쳐

수능 만점자 출신 서울대 의대생 이진형 '피의게임2' 우승 "주식·코인으로 한 차례 실패해 우승 상금은 저금 할래요"

수능 만점자 출신 서울대 의대생 이진형이 '피의게임2'에서 우승했다. 최대 상금 3억원을 걸고 서바이벌에 임했지만, 게임하며 개인 자금을 다 써 최종 상금은 5000만원에 그쳤다.

이진형은 9일 공개한 웹이 피의게임2 13회에서 UDT 출신 유튜버 텍스를 꺾고 우승했다.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경험"이라며 "타 서바이벌에 출연한다고 해도, 피의 저택에서의 2주간 경험만큼 새롭고 강렬할 수 있을까 싶다. 참가를 결심한 순간부터 오직 우승만을 바라보고 달렸기에 아름다운 패배보다 추악한 승리를 택했다"고 돌아봤다. "막상 우승을 차지한 순간에는 우승의 기쁨보다 모든 게 끝나서 아쉬움이 컸다"며 "지금도 내가 우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관한 고민이 들지만 '살아남는 게 강하다'는 서바이벌계 대명제처럼 아찔한 우승했으니 우승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텍스와 점전 끝에 이긴 비결도 꼽았다. "우승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부담감이 컸다. 우리 둘 다 한 수를 두는 데 최소 30분씩은 걸렸는데, 화면으로 지켜보던 탈락자들이 속터져 했다고 들었다"며 "오래 서 있다 보니 후반부에는 체력적으로도 지쳤고 집중력도 조금씩 흐려져 4대2로 이기고 있을 때 순간 방심하기도 했다. 텍스의 회심의 한 수에 허를 찔렸고, '이대로 지나?'라는 생각에 멎었다"고 회상했다. "아무리 찾아도 이길 수 있는 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주마등처럼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바닥을 보였는데 우승을 못 하고 돌아간다면 너무 억울하겠다 싶었고, 마지막 남은 집중력을 발휘해 판의 모든 자리에 모든 수를 대입했다. 정말 딱 한 자리가 있었다. 내가 간절히 우승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냥 적당히 찾다가 포기하고 패배했을 것이다. 제일 뛰어난 플레이어는 아닐 수 있어도, 제일 필사적인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우승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승 상금 5000만원 관련해서는 "등교용 자전거를 새 자전거로 바꿨다. 주식과 코인으로 한 차례 실패를 겪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남은 돈은 예금에 넣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시즌3를 제작한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우승인자에 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며 "다행히 세미 파이널부터 완전한 개인전으로 흘러가 그나마 유리했지만, 그 전까지 머니 챌린지에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판을 짜는 플레이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스스로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라고 느껴서 제작진이 감사하게도 또 불러준다면, 이런 단점을 보완해 시즌6 정도에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텍스는 시즌1에 이어 참여했지만, 어렵게 우승을 놓쳤다. "이진형님과 결승에서는 '당연히 이긴다'는 마음으로 게임을 시작했고 진행하면서 '충분히 해 볼 만 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몇 수 앞을 예측하는 비사한 머리와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집중력

이 게임을 하면서 내겐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 능력이 이진형님에게는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패배를 직감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떨어진 모든 플레이어에 대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내 능력치 100%를 끌어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고 생각하며 끝까지 임했다"고 돌아봤다.

"시즌1에서는 게임 플레이어로서 참여하기보다 텍스 그 자체로 게임에 임했다. 플레이어로서 사명감보다 내 생각과 신념이 훨씬 중요해 아쉬운 결과가 있었다. 시즌2에서는 플레이어로서 우승을 목표로 참여했다. 아직도 텍스 그 자체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 좋다면 좋고 어렵다면 또 어렵다. 준우승 비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과 운이 적절하게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야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어떤 노하우보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니 어느새 그 자리에 있었다."

전 농구선수 하승진과 충돌 관련해서는 "당시 나는 야생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질박했다. 배수진을 치고 엄청난 각오로 '습격의 날'에 임했다. 하승진님은 당연히 저택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고, '무력이 사용 가능하다'는 공지를 들은 이상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당연했다. 나 또한 그 부분을 충분히 예상했기에 실제로 격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단 한 가지 예상 못한 게 있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하승진님의 폭발적인 괴력이었다. 한국 농구 레전드 선수와 몸싸움을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영광"이라며 "승진 형님과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격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피의게임2에서 이미 내 100%를 다했지만, 준우승의 아쉬움을 채우고 싶다면 시



시즌3도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분간 서바이벌은 좀 쉬고 싶다. 앞으로 큰 계획보다 지금처럼 크리에이터로서 열심히 활동하

고 내가 잘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든 열정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 고두심, H&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



배우 고두심이 소속사 에이치엔드(H&)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새 출발을 알렸다. 12일 에이치엔드엔터테인먼트 측은 고두심

과의 전속계약 소식을 발표했다. 에이치엔드엔터테인먼트 흥민기 대표는 "전폭적인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고두심은 1972년 데뷔 후 6번의 연기대상을 수상한 배우다. 그는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나의 아저씨', '동백꽃 필 무렵', '우리들의 블루스' 등의 작품에 출연해 인상 깊은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커피콜', '아이랜드' 등으로 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두심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에이치엔드엔터테인먼트는 주지훈, 정려원, 인교진, 소이현, 윤박, 천우희, 광동영, 정수정, 김혜은, 류현경, 손담비 등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 조보아·로운 호흡... '이연애는 불가항력'

배우 조보아와 그룹 'SF9' 로운이 로맨스물에 입 맞춘다.

JTBC 수목극 '이연애는 불가항력'은 300여 년 전 봉인된 금서를 얻은 녹지와 공무원 '이홍조'(조보아)와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변호사 '장신유'(로운)의 로맨스다. 홍조는 운주시청 민원 해결사인 9급 공무원이다. 난데없이 오래된 목함 주인이 되면서 신유의 저주를 풀 열쇠를 쥔다. 신유는 에이스 변호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원인 모를 병이 극심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풀고자 홍조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준은 홍조가 짝사랑하는 운주시청 공무원 '권재경'을 맡는다. 달콤한 미소 속 상처를 숨긴 인물이다. 홍조와 신유가 가까워지는 모습에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그룹 '걸스데이' 출신 유라는 신유의 연인 '윤나연'이다. 과거 자신이 괴롭힌 홍조를 향한 신유의 관심이 본성을 드러낸다.



'키스식스센스'(2022) 남기훈 PD와 '백일의 낭군님'(2018) 노지설 작가가 만든다. 8월 방송.

## 스키즈, '빌보드200' 3번째 1위에 "스테이 덕에 '특별한 성과'"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세 앨범을 연속해 올린 대서 그룹 '스테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벅찬 소감을 전했다.

스테이 키즈는 12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 번째 '빌보드 200' 1위 소식을 접하고 정말 기쁘고 놀랐다. 우리 스테이(팬덤) 덕분에 이렇게 특별하게 반짝이는 감격스러운 성과를 받았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내외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에서 신선한 자극과 생생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스테이 키즈를 스테이 키즈답게 만들어 주는 전 세계 스테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고 덧붙였다.

11일(현지시간) 빌보드 차트 예고 기사에 따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가겠다"

르면,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 2일 발매한 정규 3집 '★★★★(5-STAR)'(파이브스타)는 17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스트레이 키즈는 작년 4월 미니 6집 '오디너리(ODDINARY)'와 같은 해 10월 미니 7집 '맥시던트(MAXIDENT)'에 이어 3개 앨범을 연속해 '빌보드 200' 1위에 올리는 기염을 토하게 됐다.

지금까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팀은 스트레이 키즈 외에 글로벌 슈퍼그룹 '방탄소년단'(BTS), '슈퍼매',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있다. 이 중 해당 차트에 3개 앨범 이상을 정상에 올린 팀은 방탄소년단(총 6개 앨범 1위)과 스트레이 키즈뿐이다.

미국 음반 판매량 조사회사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파이브스타'는 발매 첫 주에 24만 9500장 상당의 앨범이 팔렸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큰 첫 주 판매량이다. 이 중 피지컬 음반 판매량은 23만 5000장으로 북미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렸다. 작년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0집 '미드나잇스(Midnights)'가 첫 주에 114만 장(작년 11월 5일자) 판매한 이후 가장 많다. 아울러 24만 9500장 판매량은 스테이 키

즈 전작들의 미국 내 판매량 2배 이상에 해당한다. 또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랩 오브 더 솔 : 세븐'(2020)(42만 2000장)과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2022)(31만 4000장)에 이어 역대 미국 내 K팝 첫 주 음반 판매량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기도 하다.

스테이 키즈는 북미 시장에서 막강한 팬덤 '스테이'를 구축하며 방탄소년단을 잇는 K팝 보이그룹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과 4월 2일엔 스탠필드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BMO Stadium)에서 콘서트를 열고 방탄소년단에 이어 K팝 보이그룹 사상 두 번째로 현지 스타디움 입성과 매진 기록을 썼다.

앞서 스테이 키즈는 '파이브스타'로 K팝 음반 판매량 기록을 다시 썼다. 역대 K팝 최다 선주문인 513만 장을 넘겼다. 한터차트 기준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461만 7499장으로 역시 K팝 음반 역대 초동 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타이틀곡 '특' 역시 글로벌 음원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스테이 키즈는 오는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세 번째 단독 팬미팅 '파인릿 : 포 파이브스타'를 연다.

뉴시스

## 가수 겸 크리에이터 시아지우, 신곡 'YUMMY' 발매

MV다양한 캐릭터 선보여

가수 겸 크리에이터 시아지우가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YUMMY는 틴팝(Teen Pop) 장르의 곡이다. 여기에 시아지우만의 가사와 잘 맞는 안무와 발랄하면서 키치한 보컬이 더해져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앨범에는 슈퍼주니어, 몬스타엑스, NCT127, Wayv, SF9 등 국내를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들을 프로듀싱한 trapisgodsound의 대표 선(\$UN)이 참여했다. 음원과 함께 선보인 뮤직비디오는 다중우주(Multiverse) 스토리 속 시아지우의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줬다.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살려

솜품의 대표적 기능인 트랜지션(화면전환)을 뮤직비디오에 활용했다.

SNS 총합 팔로워 3100만명을 보유한 시아지우는 신곡 YUMMY 홍보를 위해 댄스 챌린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시아지우는 지난해 10월 첫 싱글 앨범 'Do it My Own Way(D.I.M.O.W)' 발매 이후 약 6000개 댄스 챌린지 영상을 내놓고 약 670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소속사 슌이엔티도 YUMMY 음원 홍보를 위해 전속 크리에이터들의 댄스 챌린지 참여와 함께 시아지우와의 댄스 콜라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아지우는 2017년 JTBC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연습생으로 이름을 알렸



고, 2018년부터 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숏폼 플랫폼에서 댄스를 중심으로 패션, 뷰티, 메이크업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크리에이터다. 제58회 대중상영화제,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제1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의 엠버서더로 활동하기도 했다.